

추석 연휴기간 총 3,200만 명 이동

- 11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(10.2.~10.12.) 운영
- 전년 대비하여, 일 평균 교통사고 건수 45.2% 감소, 사망자 4.4% 감소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(10.2.~10.12, 11일간) 동안 총 3,200만 명(잠정치)이 이동하였으며, 이는 대책기간이 6일 이었던 지난해 이동인원 2,973만 명보다 7.6%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.

○ 다만, 추석 연휴기간 증가에 따른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.5% 감소(791만 명 → 771만 명) 하였다.

○ 이동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(84.7%)를 이용 하였으며, 철도(7.5%), 버스(5.7%) 순으로 나타났다.

□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541만 대로 작년 555만 대보다 2.5% 감소하였다. 이는 긴 연휴기간으로 인해 이용객이 분산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.

○ 올해 추석은 귀경기간(최대 7일)이 길어, 주요 도시간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증가하고, 귀경의 경우 차량 분산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(서울↔부산) 귀성 9시간 15분(전년비 1시간10분↑) / 귀경 9시간 55분(전년비 35분↓)
(서울↔목포) 귀성 7시간 40분(전년비 1시간15분↑) / 귀경 8시간40분(전년비 1시간20분↓)

□ 전국의 교통사고* 일 평균 발생건수는 263건으로 작년 480건보다 감소(45.2%↓) 하였으며, 일 평균 사망자 수는 6.5명으로 작년 6.8명보다 소폭 감소(4.4%) 하였다.

* '25.10.12, 24시 기준 잠정치로, 향후 경찰청의 교통사고 집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-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“긴 연휴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특별교통대책 기간동안 큰 사고 등이 없었던 것에 대해 감사한다”면서,
- “이번 대책기간 동안의 교통수요 등 분석과 교통대책 시행결과 개선할 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이동안전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배석주 (044-201-3804)
		담당자	서기관	최효준 (044-201-3786)
			주무관	권희만 (044-201-3793)